

중소 2題

경기전망 ‘악화’ 줄고 ‘호전’ 늘었다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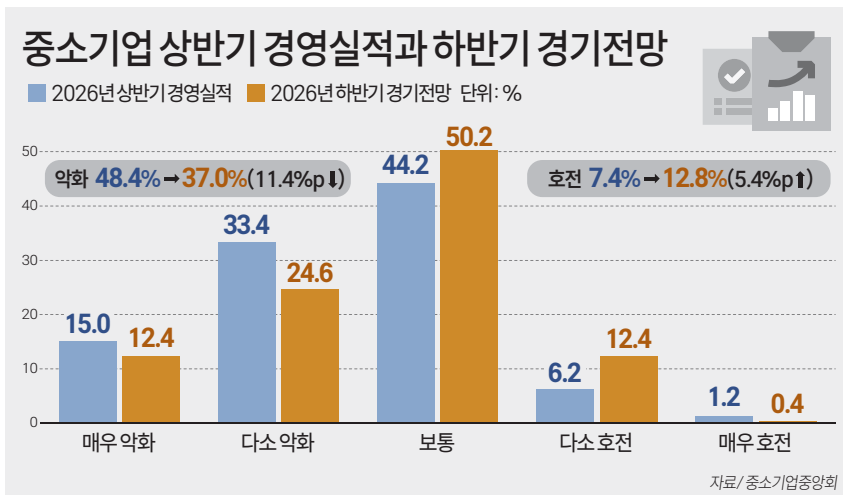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500개사 설문조사 부정적 37%·긍정적 12.8% 응답
매출·영업익·자금사정 개선 기대
원자재값·내수부진 부담 이어져
하반기 최우선 전략 ‘위험 관리’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경기는 어떨까.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반기보다 ‘악화’는 다소 줄고, ‘호전’은 소폭 늘었다. 상반기에 비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 증가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은 ‘악화’가 37%로상반기 대비 11.4%포인트(p) 줄었다. 반면 ‘호전’ (12.8%)은 5.4%p 증가했다. 다만 절반인 50.2%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인 모습이다.

제조업의 ‘호전’ 비율은 14.4%로 비제조업(11.2%) 대비 3.2%p 높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호전 전망 비율(16.5%)도 전체 평균(12.8%) 대비 3.7%p 높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상반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항목에서 모두 ‘호전’ 응답이 증가하며 경기 개선을 전망했다. ▲공정가동률의 경우 호전 응답은 다소 줄었으나 ‘보통’ 응답이 대폭 증가했다.

수준 판단 항목에선 ‘보통’ 응답이 80% 내외로 대다수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적정 수준이며, 상·하반기간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경영 애로요인으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높았다. 환율변동성 증가, 물류비 상승, 지정학적 불안이 뒤를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을 제외한 주요 애로 요인은 상반기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절실히 요구하는 세부담 완화와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대외 변동성 관리를 아우르는 세심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출산·육아에 ‘경영 공백’
여성기업인 부담 더 커져

여성경제연구소, 645개사 조사
응답자 88.5% 일·생활 균형 부담
가족돌봄 편중·육아 책임 주요 원인

여성기업인 10명중 9명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일과 생활 균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여성기업 64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일·생활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가족돌봄 등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란 답변은 7.9%, ‘부담이 없다’는 3.6%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담은 1인 여성기업이 91.7%,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이 91.4%로 각각 집계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부담이 큰 실정이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복수응답)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65.3%)와 ‘자녀 육아 부담’ (54.6%)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여성기업인은 임신·출산 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 (24.3%)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 (23.6%) 등을 꼽았다.

또 육아 등 자녀돌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 (19.3%), 부모 등 가족돌봄에선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지원’ (26%)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인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97.1%에 달했다.

여경연은 “현재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실상 지원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metro

현대백화점·이마트, 유통상생 공로 정부 표창

중기중앙회, 제6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기부, 플랫폼 협력 전 산업 확대
11번가·롯데온도 우수기업 선정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상생에 힘쓴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11번가는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 롯데온은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6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6화째를 맞은 유통상생대회는 유통 분야 대·중소기업의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모범 기업을 포상하는 행사다. 이날 유통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을 동력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4개 기업을 포상했다.

현대백화점은 총 3227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유통상생대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해 지난해에만 23억원 가량의 성과를 협력사와 나눴다.

이마트는 동반성장펀드 1246억원 조성에 힘쓰고 연간 300곳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 공동 개발, 해외 배송 등 수출을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 힘썼다.

11번가는 ‘신규셀러 판매 UP’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중·소상공인에게 1년간 낮은 고정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상생에 나섰다. 롯데온은 47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조성,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빠른 정산·수수료

인하 등 총 43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상생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생태계가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범위 온라인 플랫폼 등 전 산업 확대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간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상생협력 확산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AI 윤리헌장 선포… 준수기관 인증

편향·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 예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윤리헌장을 수립·선포하고 ‘AI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

21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관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이 확대됨에 따라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개인정보 침해, 보안 위험, 투명성 저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AI 윤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먼저 중진공은 지난 7월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임직원의 실천 기준을 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윤리헌장’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사람 중심의 AI 활용 ▲공정성 확보 및 차별 방지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설명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AI 활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의 원칙을 담았다. /김승호 기자



지난 20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열린 SK인텔릭스-KAIST AI컴퓨팅학과간 MOU 체결식에서 (왼쪽 5번째부터) KAIST 이의진 AI컴퓨팅학과장, SK인텔릭스 김형진 나무엑스사업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인텔릭스

대한항공, 야생동물 불법거래 차단 동참

국내 항공사 첫 英 버킹엄궁 선언 서명
글로벌 운송 TF 참여해 의심 화물 거부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 (Buckingham Palace Declaration)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 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11개 실행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 야생동물 보호 연합인 유나이티드 포와일드라이프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참여한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참여로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편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 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도종 회귀종 보석 도마뱀의 복귀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인텔릭스, KAIST와 AI 정신건강 협력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 API 연구 활용

SK인텔릭스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웰니스 로보틱스 기반 AI 정신건강-웰니스 서비스 소프트웨어(SW) 개발·고도화에 나선다. 21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니스 로보틱스 기반 AI 정신건강-웰니스 서비스 SW 공동 연구개발 ▲제품 및 API를 활용한 공동 연구·실증 환경 구축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연구 데이터셋 수집 및 활

용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웰니스 관리 솔루션 실증 ▲정부 실증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 과제 공동 수행 ▲초청 강연, 해커톤, 인턴십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SK인텔릭스는 세계 최초의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의 개발·자용 API를 연구 플랫폼으로 제공해 연구진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AI 알고리즘과 웰니스 서비스를 검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